



■ 태극전사 23명 부상·컨디션

지난 2002년 '4강 신화' 재현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마침내 10일 간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지훈련을 마치고 6일(한국시간) 밤 '결전의 땅' 독일 쾰른을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태극전사들의 합숙훈련은 지난달 28일 글래스고로 날아온 태극전사들은 두 차례 평가전과 강도 높은 자체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운재 등 16명 부상'無' 송종국 허벅지 근육통

하지만 훈련이 계속될수록 선수들의 부상 역시 '바늘과 실'처럼 따라 다니게 마련이다. 독일 입성을 앞둔 태극전사 23명의 부상 여부와 몸 상태를 조명해본다.

- ▲이운재(GK·수원) = 노르웨이전에서 축구화에서 머리를 쳐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 현재 부상 없음.
- ▲김응대(GK·성남) = 부상 없음.
- ▲김영광(GK·전남) = 노르웨이전에서 이운재와 교체출전. 부상 없음.
- ▲이영표(DF·토트넘) = 지난달 16일 입국 이후 컨디션 난조로 잠시 주춤. 세레갈전(5월23일)에 결장한 뒤 치른 3차례 평가전에 부상 없이 풀타임 출전.
- ▲김상식(DF·성남) = 부상 없음.
- ▲김영철(DF·성남) = 글래스고 전지훈련에서 잠시 재활훈련. 부상 없음.
- ▲송종국(DF·수원) = 세레갈전 이후 오른쪽 허벅지 근육 통증 호소. 가나전 이후에도 같은 부위 통증으로 재활 훈련.
- ▲조원희(DF·수원) = 부상 없음.
- ▲김동진(DF·서울) = 부상 없음.
- ▲최진철(DF·전북) = 노르웨이전에서 왼쪽 허벅지 찰과상.
- ▲김진규(DF·이와타) = 가나전에서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니 근육부상. 재활 중.
- ▲이을용(MF·트라브존스포르) = 자체 연습경기에서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 현재 부상 없음.
- ▲백지훈(MF·서울) = 부상 없음.
- ▲이호(MF·울산) = 훈련 중 오른쪽 발등 부상 이후 회복됐다가 가나전에서 다시 통증 느껴 재활훈련.
- ▲김남일(MF·수원) = 자체 연습경기에서 오른 발목 염좌. 현재 부상 없음.
- ▲박지성(MF·맨체스터유나이티드) =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오른 발목 외측 측부 인대 부상. 재활 뒤 자체 연습경기에서 왼 발목 염좌.
- ▲김두현(MF·성남) = 부상 없음.
- ▲박주영(FW·서울) = 감기증세. 부상 없음.
- ▲설기현(FW·울버햄프턴) = 자체 연습경기에서 오른쪽 사타구니 근육 타박상.
- ▲이천수(FW·울산) = 가나전에서 오른쪽 종아리 타박상. 재활훈련.
- ▲정경호(FW·광주) = 부상 없음.
- ▲조재진(FW·시미즈) = 소집훈련 초기 오른쪽 다리 인대 부상. 현재 부상 없음.
- ▲안정환(FW·뉘스부르크) = 부상 없음.

“토고전 맞춰 최상의 컨디션 조절”

월드컵대표팀의 독일 입성을 앞두고 6일 오전(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파크에서 실시된 훈련에서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짧은 훈련, 굵은 효과’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마침내 7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결전의 땅’ 독일 쾰른에 입성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체력 향상과 조직력 완성에 초점을 맞춘 글래스고 전지훈련의 효과를 충분히 이어가기 위해 오는 13일 치르는 2006 독일월드컵 G조 첫 상대 토고전에 맞춰 훈련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태극전사들의 훈련계획은 글래스고 전지훈련에 비해 훈련 강도를 낮추면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려 토고전에 ‘베스트 11’의 컨디션을 최고치로 만들겠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글래스고 전지훈련 초

훈련 강도 낮추고 개인별 몸만들기 11일 전술훈련 완성...비공개 방침

반 하루 두 차례 강도높은 훈련과 함께 두 번의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태극전사들의 체력을 바닥으로 끌어 내렸다. 이후 훈련강도를 서서히 낮춰 선수 개인별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주력했다.
독일에 도착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까지 단 한번 두 차례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루에 한 번만 훈련을 하면서 바다에 떨어진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을 회복시

킨다는 복안이다.
우선 대표팀은 7일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페르 교외의 올리히하버란트 슈타디온에서 한 차례 훈련을 치르고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두 차례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선수들의 신변증(AD)을 만들기 위한 사진촬영으로 하루 일과를 끝낸다.

대표팀은 10일 쾰른 교외의 바이아레나 슈타디온으로 옮겨 오전 11시에 국내의 취재진과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훈련을 치르고 11일에는 세밀한 전술훈련 완성을 위해 첫 완전 비공개 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토고전을 하루 앞둔 12일에는 오후 6시부터 경기장 치러질 프랑크푸르트 코메르츠방크 슈타디온에서 경기장 적응훈련에 나선 뒤 13일 토고와 대망의 독일 월드컵 G조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대표팀은 14일 오전 11시에 올리히하버란트 슈타디온에서 회복훈련을 실시하며 이튿날 오후 5시30분에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훈련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소 월드컵’

■ 월드컵 소식

최진철 “포백수비 아직 미흡”

“포백(4-back)라인의 조직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망형이자 포백라인의 조율을 담당하는 중앙 수비수 최진철(35·전북)이 여전히 불안한 수비진의 조직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진철은 6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파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에 입성하면 수비라인의 조직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아직까지 조직력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 우승엔 선수 1인당 5억 포상금

아드보카트 감독이 독일월드컵에서 우승할 경우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 개인에게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근 대한축구협회 전무는 6일 “2002년 한일월드컵 포상금 기준과 비슷하게 대표팀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딕 아드보카트 감독에게도 이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선수 개인에게 돌아갈 보너스 액수는 16강 진출시 1억원, 8강시 2억원, 4강시 3억원, 우승시 5억원이다.

따라서 한국이 월드컵에서 챔피언에 오르면 대표팀 23명 전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무려 115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 액수는 독일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스페인(개인당 6억9천500만원), 잉글랜드(개인당 5억3천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보너스가 될 전망이다.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입한 뒤 선수 개인에게 3억원이 돌아간 포상금액수와 비교하면 보너스 수준은 2002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 김 전무의 판단이다.

토고 ‘보너스 갈등’ 해결 안돼

토고의 ‘보너스 갈등’이 아직 깨끗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 방면에서 훈련 중인 토고 축구대표팀은 7일 오

전 1시30분(이하 한국시간) 열린 현지 아마추어 클럽 FC방면과 연습경기를 앞두고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방면 알고이스타디움에서 한 차례 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토고 대표팀은 지난 3일 리히텐슈타인 파두츠에서 치른 리히텐슈타인 대표팀과 평가전 이후 가벼운 회복훈련만 한 차례 가졌을 뿐 이를 동안 전혀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토고 대표팀은 예고도 없이 훈련을 취소하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도 없이 선수들끼리만 숙소인 발터스빌 근처 인조잔디구장에서 비공개 훈련을 했다. 훈련이러기 보다는 몸풀기에 가까웠다.
미국 SI지 “본선진출국 중 한국 22위”
한국이 이번 2006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22위의 전력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이하 SI)는 6일(한국시간) 인터넷 판 보도를 통해 32개국의 ‘파워랭킹’을 선정했는데 한국은 22위로 꼽혔다.
기사를 작성한 요나 프리드먼 기사는 한국에 대해 “아저씨 2002년의 기록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대회의 엔트리는 4년 전보다 더 능력과 경험을 갖췄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술이 아직 완벽히 녹아들지 않았다’고 평했다. 한국과 같은 조인 프랑스는 6위에 꼽혔고 스위스는 19위, 토고는 최하위인 32위로 평가됐다.
SI가 선정한 1위부터 10위는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체코 순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